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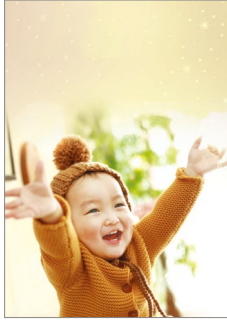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6
Winter

vol.184



겨울 이야기

맹렬한 추위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겨울입니다. 하지만 은우의 해맑은 미소에 공공 언 마음이 금방 녹아버렸네요. 홀트 아이들의 웃음처럼 밝고 포근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진

마이대디스튜디오, 베이비바스텔 스튜디오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4호 · 기간 **발행일** | 2016년 12월 13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백상옥(자원개발실장),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장신(일산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 설태호 이사(주목상사 대표) |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T.062)363-8878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T.032)424-583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홀트미추홀 T.070)8210-160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네덜(홀트드림센터) T.02)331-708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9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하루도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혼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혼란스러운 듯 보여도 그 정해진 순리에 따라 변함없이 진행하고, 질서를 지키며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상으로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에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이지만 홀트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연의 복지 업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홀트일산복지타운의 시설 장애인들의 음악을 통한 재활치료를 위해 만든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미국 공연이 10/6~18까지 LA, Portland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장애인들의 노래는 이민사회에서 힘들고 치진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름 뺑-시즌 1'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고 시즌 2 출시를 앞두고 산고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곧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시즌 1에 이어 시즌 2도 성원 바라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혼한부모를 지원하는 일에도 많은 성과를 거둬 미혼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기초를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더욱 확장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월부터는 네팔의 아이들을 돕는 해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홀트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저만치 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홀트 가족 모두는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항상 그렇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맞이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트를 사랑하고 후원하며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된 성탄절과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너를 통해 이 세상 어느 한 부분에 따스함이 깃들기를

8년의 입양 고민 끝에 주아를 만났던 날, 부부는 아이의 장애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자리 한켠을 차지하고 있던 아이를 부부는 결국 내 아이로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는 주아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14개월의 주아가 처음 김윤동·김은향 부부의 집에 온 날입니다. '정말 내 아이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으며 8년의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맞이하게 된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때 고민하지 않았다면 주아를 더욱 빨리 만나 올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만난 것만으로도 부부에게는 축복이요, 행운인 듯 여겨집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주아네는 투명하리만치 말간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다소 예민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밝고 명랑한 주아 덕분에 나들이 내내 끊이지 않던 웃음... 공기마저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아는 엄마·아빠 껌딱지!

“주아 자전거 탈 거야? 아빠가 목마 태워줄까?”

피크닉을 즐기는 내내 엄마 아빠의 관심은 온통 주아에게 몰려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느냐는 주아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파사르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뻐 죽겠는데 사람 많은 곳이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처음부터 ‘와~ 엄청 예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기 전날은 너무 설레서 잠도 못잘 정도였는데, 막상 보니까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아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내면 지낼수록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남편은 아이가 심한 분리불안으로 낯선 사람을 많이 경계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주아 없이는 못 사는 딸 바보예요(웃음).”

당장 주아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놀라거나 낯선 사람에게 오는 걸 불편해 할까봐 그저 조심스레 바라보기만 했다는 김은향 씨는 아마 그때 주아가 속으로 “엄마 될 사람이 왜 저래?” 했을 거라며 호호 웃습니다.

“저한테 안기까지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자다가 깰 때 안 보이면 난리가 날 정도로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으면서 말예요. 덕분에 제가 질투를 좀 많이 했죠, 하하.”

하지만 이제 상황은 크게 바뀌어서 주아는 아빠에게도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뻐 어쩔 줄 모르는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사진을 보다가 주아가 가족이 되기 전과 후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아를 예뻐해주기 때문인 것 같라며 부부는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는 자다 깨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 엄마 여기 있어~’ 한 마디면 다시 곤히 잠이 들어요. ‘엄마는 항상 주아 옆에 있어, 걱정 마’라는 말을 자주 해줬거든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라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의 변화한 모습을 보면 ‘안정과 자존감을 많이 찾았구나’ 싶어 감사하게 돼요.”

이렇게 밝은 모습을 가지게 된 주아에게 병이 있다니, 선뜻 믿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하고 예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또한 주아를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백질연하증...

뇌병변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너를 응원한다

“처음 홀트 담당 선생님께서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지금이 정상처럼 보였거든요.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지켜보며 입양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도 저희는 주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기에 많이 슬펐고, 아이가 불쌍했죠.”

심하면 뇌성마비가 올 수도 있는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향 씨는 주아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잘 돌본다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일. 남편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장애가 있더라도 치료하며 키웠을 텐데, 평생을 책임지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주아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신 것이다.’ 그 확고한 의지 덕분에 저희가 합심해서 입양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아는 결국 2016년 6월 MRI와 발달 검사를 통해 뇌병변 6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명은 백질연하증. 뇌실 백질 조직이 손상돼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며, 주로 강직성 뇌성마비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병입니다.

“다행히 가족과 지인들의 반대가 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홀트의 의견을 참고하라고 조언해주셨죠. 장애아를 양육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계셨기에 홀트에서는 재고를 권하셨거든요.”

하지만 부부가 입양에 관해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욕심보다는 우리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기를 만나자’는 것. 그래서 주아를 만난 것도 입양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일지 모른다고 부부는 믿고 있습니다.

현재 주아는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16년 2월부터는 지역 무지개센터에서 주3회 운동치료와 언어치료, 주1회 감각통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많이 울고 보채며 응하지 않으려고 하던 것이, 지금은 적응되어 재미있는 듯 웃으며 치료에 임합니다. 덕분에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 뛰어들어다니기도 하고, 혼자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주아. 아이의 의욕이 넘치고 예후가 좋아 담당 선생님들은 상태가 점점 호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아는 굉장히 밝고,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표정을 지으며 어루만져주고 ‘엄마가 아야 하니가 아빠가 우유 갖고 와야 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웃음). 저희는 주아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귀한 재산이 되고, 받은 사랑을 듬뿍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올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면 더 좋겠고요. 주아를 통해 이 세상 어느 한 부분이 따뜻해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주아가 사랑을 받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주아가 주는 사랑과 기쁨으로 인해 가정이 점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런 보물 같은 아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면서….

그래서 부부는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부부가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만나게 되기를… 꼭 내가 낳은 아기만 내 자식이 아니며,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고민한 시간마저 아까울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경험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쁜 딸을 준 홀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돌아서는 가족의 아우라가 햇살보다 더욱 찬란합니다. 그것은 분명 이 가족과 주아가 걸어갈 미래의 모습일 거라 믿습니다. **Holt**

여자이자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대들에게

홀트패밀리 김미경 강사

2014년 10월 ‘김미경의 특앤쇼’가 첫 공연되던 날, 객석에서 당당히 손을 든 채 “저는 미혼모예요”라 외치는 이가 있었다. 일순 400석 이상의 공간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것은 물론 김미경 강사가 당혹스러움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그것은 김미경 강사의 인생에 ‘미혼한 부모(이하 미혼모)’라는 단어를 박아넣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녀가 미혼모들에게 꿈을 찾아주겠다는 목표를 가지며 노후 계획까지 바꾸게 하는 크나큰 변화를 몰고 왔다. 여자이기에 가질 수 있는 무조건적인 책임마저 사랑한다는 그녀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 여자이기에 갖는 무조건적인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모성과 같은.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엄마예요. 연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여성에 대한 제 애정이 비롯된 것 같아요.”

대화를 시작한 후 그녀가 꺼낸 첫 말이었다. 나눔을 자신의 일부라 여기고 있는 그녀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미혼모에 애정을 가지는 이유가 궁금했다. 익히 알고 있던 ‘엄마’란 존재에 대한 애정이 미혼모로 스며든 이유는 무엇일까.

**21세 미혼모가 내 시간으로 뛰어든 날,
나는 그들에게 뛰어 들었다**

그녀는 여자를 좋아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여자끼리 돕는 것, 비슷한 삶에 대한 책임이 그녀의 몸에 배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혼모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딱히 그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존재가 그녀의 인생에 불쑥 뛰어 들어왔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우연이었다.

“오픈 토크 때 객석에 앉아 있던 한 친구에게 ‘당신은 나이도 어린데 이런 날 남자친구랑 있지 않고 왜 혼자 다니냐고 물었더니 ‘전 미혼모예요. 오늘이 아이의 돌인데, 스스로가 대견해 6만 원이나 들어 평소 좋아하던 강사님의 토크쇼를 제게 선물로 줬어요.’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미혼모를 가까이에서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다 그 당당한 태도라니!”



매일 그녀의 방송을 들으며 엄마로서의 용기를 얻었다는 말도 감동적이었지만, 한 달에 겨우 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6만 원이나 들어 그녀의 공연을 보러 와주었다는 사실이 김미경 강사는 그리도 마음에 걸렸었다. 내내 ‘차비라도 줘야 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공연 후 부랴부랴 쫓아나갔음에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날의 사건은 김미경 강사에게 ‘미혼모’라는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눔 활동에도 공합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깨어나 그녀와 미혼모에 대해 생각하곤 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끌려요. 제가 그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녀는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비틀린 시선이 못내 안타깝다. 혹자는 그들을 꼬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답게 인생을 풀어낸 누구보다 용감한 여성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힘들고 지쳐 매일 울면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켜내는 그들을 감히 누가 연약하다고 할 것인가.

“미혼모들을 만나보면 엄청 동배짱이에요. 가녀리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강인하죠. 그게 바로 여자, 엄마의 힘이에요.”

가족과 단절된 채 엄마의 역할, 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외로운 그들에게 든든한 언니가 되어주고 싶다는 김미경 강사. 자신이 무엇인가 해냈다면 그녀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그들에게 조언자의 역할이라도 해주고 싶단다.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얼마 전, 드디어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

미혼모의 꿈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김미경 강사와 홀트가 인연을 맺은 건 그녀의 첫 토크쇼가 진행되고 얼마 후인 11월, 캥거루 스토어 설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Jump With Baby’를 통해서다. 이후 팬들과 함께 홀트 타운을 방문, 봉사 활동을 펼치는 등 무척 적극적인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홀트는 제 선배이자 파트너예요. 후원이 대거 들어오면 홀트를 통해 지원하고, 홀트에서 필요한 건 제가 돕기도 하죠. 홀트 타운 봉사 때는 10명의 봉사자를 뽑는데 500명이나 지원하는가 하면, SNS에 글을 올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품을 트럭으로 보내주시기도 해요. 저 혼자만으로는 분명 힘에 부칠 텐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죽고 싶



다.’ 김미경 강사의 가슴 속에 이 글귀는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다. 그녀 또한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탄생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예요.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하지만 죽을 때는 다시 탄생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죠. 전 돌아가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탄생과 가까운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50세부터는 슬슬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자면 오드리 햅번을 들 수 있겠네요(웃음).”

그녀는 누군가의 인생에 힘이 되는 일,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단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미혼모들을 돕는 일이다.

“그들을 만나보니 상담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15세까지는 엄마가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이후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엄마들까지 흔들리게 되고요.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 듣는 5~6세가 되면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 영향으로 제가 80세가 됐을 때는 20대의 건강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준비 중이다. 그들을 얹은 연민으로 대하면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든 프로젝트를 계획한 것이다. 직원들과 함께 자료도 찾고, 홀트 전문가에게 배우고 공부도 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해온 일이 지난한 기다림 끝에 얼마 전 승인이 난 상태다.

“미혼모를 만나는 것,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죠. 센터 이름은 가칭으로 ‘그루맘’이라고 정해줬는데, 애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라는 게 아니라 미혼모 스스로가 성장하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도 궁금하지만 전 제대로 키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된 그들의 40대 모습도 궁금해요. 이미 그들 중에는 박사 논문을 내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등 잘된 사람도 있고, 그들이야말로 같은 싱글맘들의 진정한 롤모델이 되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들을 강사로 키울 계획이고요. 성공한 미혼모가 성장 중인 미혼모를 도와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대중에게도 더욱 당당히 나서게 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엄마들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도를 넘어 몸과 영혼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김미경 강사. 그녀가 모성 가득한 미혼모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더욱 멀리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으면 한다. [#HWT](#)



애인식을 개선하고, 의료문제와 장애로 입양을 갈 수 없는 합창단원들과 한인 입양인의 만남을 통해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꿈으로 공연준비를 시작했지만, 약 40명의 일행이 이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큰 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합창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의 이야기는 '삼성복지재단'에게까지 전해졌고, 삼성에서는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공연 전체 경비를 후원해주었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후원회장님인 JW그룹 이종호 명예회장님께서서는 미국공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MPAK(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 스티브모리스 회장님과 홀트인터네셔널 폴김 선생님께서 합창단의 미국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로 2016 미국 공연은 잘 준비되어 드디어 10월 6일, 홀트 김대열 회장님을 비롯한 12명의 스태프, 28명의 단원들과 연주진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11박 13일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미국 땅에 울려 퍼진 '홀로아리랑'

장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 약 2주의 기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장애를 가진 우리 단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있는 곳에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만연했고, 숙소에 들어와서까지도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흥얼~ 신나게 노래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회장님과 합창단의 멋진 노래는 버스를 고품격 공연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던 단원들도 공연 때만 되면 기운을 내어 밝은 얼굴로 무대에 서는 프로의 모습! 이들의 열정이 어찌나 멋지던지요. 단복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 대기할 때는 떨린다며 안아 달라 하더니, 무대에만 올라가면 공연 전 긴장하던 모습들은 온데 간데없이 멋진 공연을 해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공연에서 합창단원 모두가 손을 잡고 부른 '홀로아리랑'은 단원들뿐 아니라 함께했던 스태프, 관객 모두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우리 노래... 그 노래를 온 힘 다해 부르는 합창단의 모습... 그 감동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단원들은 미국에서 총 6번의 공연들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영혼의 소리'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저 멀리 미국 LA와 포틀랜드에 울려 퍼진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의 노래에 많은 사람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영혼의 소리'는 1999년 봄, 예술 활동을 통한 재활과 잠재능력 발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입니다. 대부분 중증 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동요 한 곡을 외우는 데 한 달이 걸렸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는 수십 곡을 외워 공연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전하는 감동의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 사람의 후원으로 좁은 문이 열리다

창단 후 지금까지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노래로 희망과 감동을 전해 온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는 더 나아가 저 멀리 타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래로 특별한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통한 감동을 전할 뿐 아니라 MPAK(Mission to Promote Adoption Kids) Gala, HICS(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 Auction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장



1 은혜한인교회 공연모습



2 디즈니랜드 앞에서 찰칵!





1 맛있는 저녁 2 오렌지 가나안교회 앞에서

목소리로 전하는 희망 '영혼의 소리'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공연에서 이들이 받았던 박수는 합창단원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문 성악가처럼 화려하거나 멋지지는 않지만 이들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으로 전해졌고, 그 감동의 박수는 다시금 단원들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공항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떠날 때와 달리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벽찬 기쁨과 보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의 모습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나봅니다. 이들의 노래가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빛이 되었듯, 앞으로 이들이 노래하는 곳곳에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합창단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잘 할 수 있는 노래로 세상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추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래 할 것입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못해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찬양**

글 _ 김경선 · 홀트일산복지타운

노래하는 천사, 합창단원 이야기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잠을 잘 못 잤어요.” - 합창단 베테랑 솔리스트 박지혜

합창단의 창단멤버이며 군기반장(?)을 맡고 있는 지혜 씨는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공연을 다녀왔지만 이번 공연을 앞두고 더욱 더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미국공연을 준비했지만 출국을 앞두고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지혜 씨는 피꼬리같이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파트를 부를 때면 많은 관객들이 고개를 들고 다시 쳐다보곤 하는데요, 이번 미국 공연에서도 지혜 씨와 순구 씨가 부른 '오 솔레미오(O sole mio)'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 합창단의 막내 8살 김연희

눈에 보이는 지체장애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숨기 바빴던 연희. 합창단 활동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숨는 대신 예쁜 목소리로 당당히 노래한다는 8살 연희는 노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감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여름, 연희를 입양하고 싶다는 가정이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미국공연에서 연희의 양모는 연희를 보기위해 공연장을 찾았고, 그들의 상봉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눈가가 촉촉해졌다고 합니다.



영혼의 소리로 히스토리 '17년 발자취' 이야기



▲ 1999년 창단연주회

1999. 05 ● 창단

1999. 10 ● 창단연주회

“과연 장애인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주변의 우려와 염려로 시작된 '영혼의 소리' 합창단. 하지만 합창단원들은 그 누구보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노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소리를 전하는 특별한 합창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001. 11 ● 첫 해외공연



▲ 2001년 첫 해외공연(홀트 부부 생가)

첫 해외공연으로 미국을 간 단원들은 홀트 할아버지 생가를 찾아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밑에서 관객 없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래는 홀트 씨 부부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3. 08 ● 소나무 할아버지와 인연 시작

합창단의 든든한 후원회장님, JW그룹 이종호 명예회장님과의 인연은 자그마치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의 노래를 귀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들으신 그때 당시 중외제약 이종호 회장님께서 합창단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고, 2003년 <사랑의 후원 결연식>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JW중외그룹과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2003년 중외제약 후원결연식

2009. 06 ● 국제합창대회 참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합창대회>에 장애인합창단이 참가한 것은 대회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당해년도 대회에는 독일, 러시아, 헝가리 등을 비롯하여 25개 합창단이 참가했으며, 우리 합창단은 가는 곳마다 가장 큰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모든 특별상(종목 특별상, 특별연주상, 특별지휘자상)을 휩쓸었고,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일행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 2009년 국제합창대회

주요경력

<2016년 10월 현재 총 450여회 공연 및 90여회 방송출연>

국내 대통령 내외와 함께한 미니콘서트, KBS열린음악회, 조수미CEO콘서트 정기공연17회(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세종문화회관, 극장 용 외)

국외 미국(보스턴, LA, 뉴욕, 뉴저지, 피츠버그), 노르웨이, 덴마크, 필리핀, 캄보디아 외 2009년 국제합창대회 출전 : 오스트리아 린츠(6월), 3개 부분 수상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재활 프로그램

홀트의 입양대상 아이들 중에는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늦어지는 아이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언어발달능력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언어재활 프로그램을 알아봅시다.


입양대상아동 중 18개월가량 되는 아이들에게서 간혹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언어발달이 늦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료적인 문제로 인해 언어발달이 늦기도 하지만, 위탁가족이 아이들의 눈짓이나 몸짓만 봐도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표현하기 전에 해결해준다 보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연장아동의 양육 경험이 없으면 놀아주는 방법을 몰라 자극이 적어지기도 합니다. 홀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체된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발달놀이터(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활동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한, 전문적인 언어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가정 부근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목동아동발달센터



와 연계하여 홀트 내에서 언어재활 장소를 마련하여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대상 아동 중 언어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총 13명이며, 이 중 홀트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은 총 6명입니다.

홀트 내 언어치료대상 아동을 담당하는 유해준 언어재활사는 언어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타인의 감정과 정보를 수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음악, 미술, 놀이, 말 표현, 몸짓, 표정 등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언어·의사 전달이나 정보 수용 기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이 활동 능력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못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적 문제(정서·행동 문제)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연령에 맞는 언어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대상자의 상태와 언어 기능 수준에 따라 치료적 접근 방식이 달라지며,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한 놀이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치료(Table work)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 2회를 기준으로 치료사와 1:1 개별 치료를 진행하고 40분 치료 후 위탁모와 10분간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을 진행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언어 발달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때문에 재활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 위탁모에 대한 아동발달교육과 더불어 언어재활훈련과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글 _ 김혜성 팀장 · 아동양육팀

미니 인터뷰



Q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나요?

- 유해준 언어재활사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체가 의심되는 은석이는 치료 초기에는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면서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날부터 늘 모방만 했던 은석이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신영이는 자극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아이였습니다. 반응이 없던 아이였지만 치료 후에는 2,3번 오고가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배운 단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웃음). 석이도 참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발음이 명료하지 않아 차후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치료 후 표현력이 증가하며 상황에 따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아주 특별한 생일파티 '뷰티풀 맘스 데이(Beautiful Mom's Day)'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생일은 잊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였던 미혼한부모를 초대하여 뷰티풀 맘스 데이(Beautiful Mom's Day)라는 특별한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한부모를 지원해주세요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와 오프라 윈프리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누군지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꼽힌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미혼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유명인들이랍니다. 당연히 금수저일줄 알았는데, 혹시 놀라셨나요? 이렇듯 미혼한부모 가정은 어느 가정과 다를 게 없는 그저 평범한 가정이며, 부모는 물론이고 그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꿈을 이뤄 가는데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한부모 가정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여전히 상처받고 있는데요. 차가운 시선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몸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고 꽃꽂이하게 살아가는 엄마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Beautiful Day

I wish you to stay healthy and to be happy all the time!!

'뷰티풀 맘스 데이'를 향한 도움의 손길

생일파티에 앞서 먼저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통해 미혼한부모 생일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후원해주셨는데요. 생일파티에 참여한 엄마들은 물론이고, 거리가 멀거나 아이와 함께 이동이 어려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100명의 엄마들의 생일선물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올리브영 뿐만 아니라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데에는 정말 고마운 도움의 손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겨레에서는 행사진행 지면광고를 모두 무료로 진행해주셨고, 미디어 카페 '후'의 대관진행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생일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파티의 꽃, 바로 생일 케이크일 텐데요. 투썸플레이스에서 케이크 DIY 재료는 물론이고 전문 파티쉐분들을 보내주셔서 현장에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의 임직원 봉사단 '쉐어 워드 올리브(Share With Olive)'의 봉사자분들은 생일을 맞은 엄마들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초콜릿 하트에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 1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생일 케이크
- 2 올리브영의 기부금 전달식
- 3 아름답게 꾸며진 생일상





Beautiful Mom's Day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엄마들은 노메이크업에 뽀얀 피부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특별한 생일파티인 만큼 주니엠 메이크업 전문가 선생님들의 손길로 우아함까지 겸비했습니다. 엄마들은 거울에 비친 조금은 낯선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이내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아주며 기뻐했습니다. 하하호호갈갈 웃음소리가 연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등장할 때는 여기저기서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몽유애드레스의 이경자 원장님께서 행사에 직접 자리하셔서 한명 한명의 드레스의 매무새를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날 생일파티에 참여한 올리브영 이병록 경영지원실장님은 "여성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 나눔을 진행하게 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의 모든 여성분들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참석한 엄마들은 "아이 보느라 바깥비람 쐬기도 힘들었는데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나오니 기분전환도 되고 좋다", "혼자라는 생각에 움츠러들 때가 있곤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니 아이 기울 힘이 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리브영은 매달 행사지원을 계속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해갈 예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뷰티풀 맘스 데이는 계속됩니다. 쭉~욱.

글_ 황지혜 ·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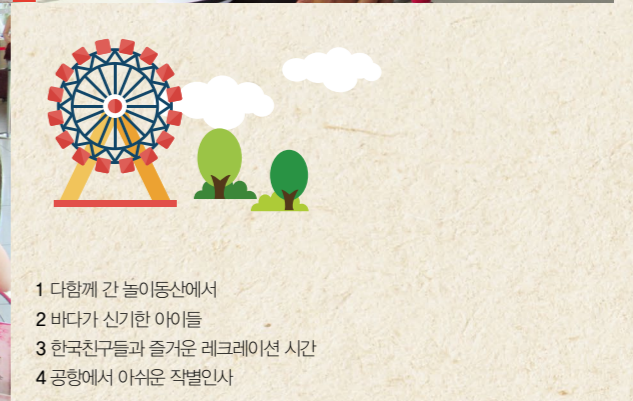
덥고 습한 나라 캄보디아, 춥고 건조한 나라 몽골. 두 나라의 아이들 10명이 또 다른 나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홀트드림센터 아동 중 학업성취도와 태도가 개선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한국 초청 연수! 생김새도, 먹는 것도, 언어도, 습관도 다른 캄보디아와 몽골의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5일간의 짧은 한국 여행에 홀트가 동행합니다.



공부해서 비행기 타자!

 해외아동 초청연수



- 1 다함께 간 놀이동산에서
- 2 바다가 신기한 아이들
- 3 한국친구들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
- 4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인사

모든 것이 새로운 아이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친구들에게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은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열어보고, 이 곳 저 곳을 만져보느라 아이들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만난 모든 것들은 온통 처음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남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도, 한강 유람선도, 동화 같은 놀이공원도. 아이들은 탄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다리던 것은 다름 아닌 바다였습니다. 태어나 처음 바다를 본 아이들은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를 하며 달려갔습니다. 특히 한강이 바다인 줄 알았다던 몽골 아이들은 조개와 게들을 외계 생명체 보듯 해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며 고기를 잡던 캄보디아 아이들은 갯벌 안에 작은 물고기를 손을 뻗어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바다를 즐겼지만 행복한 마음만은 같지 않았을까요?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일정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과 선물을, 또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폴라로이드 사진도 선물해주었습니다. 건영에서는 점심으로 중국 음식을 사주셨는데, 아이들은 처음 먹는 음식임에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 방문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처음 보는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친구가 되는 풍경을 지켜보니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내내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운 친구들을 기억하며

처음에는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어색

해 하지 않을까, 불편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은 우려였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서로의 이름을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외워 부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서툰 영어 단어들을 나열하고 손짓 발짓을 동원해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신나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함께 한 시간은 고작 5일이었지만 아이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사람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신나는 만남도 잠시, 곧 헤어짐의 시간이 왔습니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날 공항, 캄보디아 아이 스마이와 몽골 아이 앵호통갈락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영영 울었습니다. 항상 어깨동무를 하며 다니던 캄보디아 아이 멩후어와 다빗, 몽골 아이 미셀, 첼멩도 헤어짐이 아쉬워 작별인사를 몇 번이고 다시 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을 그리워합니다. 언제 또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구 저 편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기억하고 응원해주며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_한세희·해외사업팀

홀트드림센터 한국 초청연수

홀트는 2011년부터 빈곤국가의 대도시 슬럼가 아동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홀트드림센터(방과후교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초청연수는 홀트드림센터 아동 중 1년 동안 학업성취도와 학업태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아이를 선발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동의 학업동기와 자아존중감을 높여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5년 캄보디아 아동 4명, 올해는 10명의 아동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더 많은 아동과 기업·개인후원자가 함께하여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십년지기 후원친구 ‘신한금융투자’



1 후원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봉사활동
2 특수휠체어 기금전달식
3 어린이들을 위한 봄꽃나눔 페스티벌

독일 월드컵,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 아득한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년 전, 2006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홀트는 그 해에 있었던 일 중에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와 친구가 있습니다. 2006년은 홀트와 신한금융투자(당시 굿모닝신한증권)가 첫 후원행사를 시작한 특별한 해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 해 구축화가들의 그림 전시를 통한 수익금을 홀트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는데요. 다음 해에도 전시회는 이어졌고, 이후 4년 동안 이 행사를 통해 미숙아 의료비, 미혼한부모가정 양육기금, 장애아 치료비 기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일 호프데이, 입양대상 아동 분유지원, 애착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원한 분유만 23,948통이 됩니다.

올 해는 후원 10주년을 맞아 일산복지타운 원생들의 특수휠체어 구입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세월과 함께 성장하고 변하는 몸에 딱 맞춘 휠체어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후원과 더불어 특별한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일산복지타운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분들과 진행된 ‘함께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일산복지타운에서의 봉사. 처음에는 봉사활동하러 온 타운의 원생이었지만 지금은 누나, 동생이 되어 서로의 말벗이 된 모습에서 10년의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금융권 임직원이지만 이곳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친구지요.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에 한 겹 한 겹이 늘어나 나무가 두터워지듯,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친구 신한금융투자. 이들이 있어 홀트는 오늘도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글_김유진 · 나눔협력팀

나눔의 가치를 아는 기업 ‘한샘’



9월의 마지막 목요일, 홀트일산복지타운은 설렘과 기쁨의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타운 안에 들어선 큰 버스 때문인데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10개월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새 버스 만나는 날! 전달식을 앞두고 홀트장애인합창단 33명의 단원들은 아침부터 버스 앞에서 셀카를 찍기도 하고, 이리저리 구경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장애인합창단원 주상희 씨는 “새 버스가 생겨 신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존 버스는 사용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된 버스였습니다. 휠체어를 올리는 리프트는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가 올 때면 갑자기 와이퍼가 작동을 멈추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며 늘 노심초사하던 우리에게 작년 11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창단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주)한샘이 합창단원들의 소원이 ‘버스마련’임을 알고 후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죠! 이로써 합창단원과 장애인 식구들 250여 명은 각종 캠프 및 나들이, 합창공연 등 월 40회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한샘과의 인연은 올해도 지속되어 체조선수 박예은 학생과 중고등학생 10명이 장학금을 받으며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한샘은 대중들에게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 알려진 유명한 기업입니다. 최근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샘은, 나눔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포근하게



1 한샘에서 기증한 버스
2 기뻐하는 일산타운 식구들
3 일산타운 식구들이 한샘에게 쓴 감사편지

지켜주는 따뜻한 기업. (주)한샘의 온기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스며들도록 홀트가 함께 응원합니다. #한샘

글_이윤주 · 나눔협력팀

우리의 연결고리 '가족'

기부마켓 땡굴시장 이야기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시장에 가라고. 북적이는 시장 속에 진짜 모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10월의 어느 날, 기부마켓 땡굴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기부마켓

100여 개의 업체들이 아침부터 나와 북닥 북닥 공간을 꾸미고 물건을 진열합니다. 그 속에 어떤 신나는 이야기가 있는지 연신 미소 가득, 활기 충만입니다. 가을 냄새 물씬 풍기던 날, 명동성당 1898광장에서 열린 땡굴시장 '폴폴(Fall Fall)마켓'의 모습입니다. 땡굴시장은 매번 예쁜 이름을 가집니다. 계절마다 열리기 때문에 산타마켓, 봄봄마켓, 폴폴(Fall Fall)마켓 등 다양한 이름의 시장으로 변화합니다. 계절에 따라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사람도 살림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시장으로 발걸음 하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를 돕는 기부마켓이니 사람들의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웠을 테고요. 행사를 알리는 땡굴마님의 SNS 게시물에는 수천여명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진짜 멋진 마켓이에요~ 대구도 기다려요", "멋진 분!! 최고입니다~ 같이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이번에도 많은 사랑 모으세요~ 파이팅~~!!" 기부마켓에 의미를 모두가 공감하고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땡굴시장과 홀트의 연결고리는 '가족'입니다. 홀트를 통해 쌍둥이 은호와 은채의 엄마아빠가 된 양승봉·이혜선 부부가 개최

하는 기부마켓이기 때문입니다. 둥글둥글하다고 해서 붙여진 엄마 이혜선 씨의 별명인 '땡굴마님'은 인터넷 블로그 닉네임과 행사명인 '땡굴시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작년 9월에 첫 행사 이후 도움이 필요한 홀트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된 금액은 벌써 6천만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판매자의 숫자도 40개에서 103개로 늘어났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입양대상아동 민기·민준이 형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입양가족도 찾았습니다. 성장이 더뎠던 성준이도 치료를 통해 건강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땡굴시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키워낸 '우리의' 아이입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양승봉·이혜선 부부는 말합니다. 기부마켓의 정체성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되는, 상생의 의미를 잘 담아 진행하고 싶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호, 은채를 입양한 하나의 가정으로 바라봐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모범은 아니더라도 좀 더 좋은 방향의 삶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서로 애기하고 공유하면서 행동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혼자서 아닌 '함께' 실천으로 옮기는 기부마켓 땡굴시장. 겨울에 열리는 일곱 번째 땡굴시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와 연인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나 커 있을지도요...

글_김유진·나눔협력팀



1 북적이는 땡굴시장 2 양승봉·이혜선 부부와 아이들

간혹 사람들은 물었지요

그 집은 아이가 없는가보다. 라고. 간혹 저는 미안했습니다. 살림에 유난히 광대면서 사는 것이. 그러나 살림에만 매달려 사는 그 시간에 때로 마음이 저렸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온 집 안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개구진 아이가 있었으면 해서요. 아이와 씨름하느라 냉장고 청소 같은 것은 할 수 없다는 당신이

간혹 부럽기도 했노라고, 이제 와 고백합니다.

- 2014. 3. 12 블로그 <그곳에 그 집> 이혜선 씨의 글 중에서

향기로운 결연 '허브'

여러분은 허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로즈마리? 라벤더? 네, 차로 마시기도 하고 각종 요리에도 들어가는 식물, 허브가 있죠. 저는 금웅 허브나 허브 센터처럼 어떤 일의 중심이 되어 연결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이렇게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허브'는 홀트의 국내외 결연사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향기롭고 몸에 이로운 식물 허브처럼, 후원자와 아동을 이어주는 센터처럼, 서로를 이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허브'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쿵쿵. 어디서 달콤한 향기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께 그 사랑의 향기, 후원의 향기를 전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아이들

홀트는 2012년 7월부터 해외아동결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빈곤층 아동 지원을 위해 만든 홀트드림센터를 기반으로 홀트는 결연지원도 함께 확장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아동 뿐 아니라 몽골의 아이들도 결연후원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탄자니아와 네팔에서도 결연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몽골 아이들이 결연 후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며 홀트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국내의 아이들도 결연 후원으로 도와야 한다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에 밥을 굶거나, 몸 누울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전이나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해외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2016년 한국, 하루 한 끼로 배고픔을 견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아동이 최대 68만명에 달합니다(허선,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3월) 홀트가 결연 후원을 통해 지원하는 국내아동의 수는 약 2,000여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한부모가정의 아이들, 학대피해아동,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밖에 위기가정의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엔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후원자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이 연결되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은 마음이 하는 일 지금,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국내



생계주거영역(생필품 지원) / 교육발달영역(학습부진 지원) / 문화정서영역(심리상담 외) / 건강의료(아동응급의료지원)

- 해외



교육(방과후 교실) / 건강(급식, 위생교육) / 정서(문화체험) / 가정(부모교육, 경제지원)



오늘은 '허브' 홍보 동영상 제작 하는 날, 현장을 살짝 살펴볼까요?

11월 초, 성수동의 한 스튜디오가 시끌벅적합니다. 열댓 명의 스태프들과 관계자,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가 '허브'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기 때문인데요. 설렘 반, 긴장 반의 시간 속에서 영상장비를 체크하는 촬영팀의 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두둥! 드디어 녹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야 한다'며 살짝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선·정혜영 부부는 프로답게 이내 순조로운 녹음을 이어 갔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 덕분에 촬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홀트아동복지회 허브 페이지(www.holt.or.kr/hub)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행복한 우리집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삼행(三幸)프로젝트

혼밥, 혼술, 혼놀...신조어가 드러내듯 최근에는 함께보다 혼자를 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홀로 행복 속에 조부모·부모·아이 이렇게 3대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3세대가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삼행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삼행프로젝트가 궁금하신가요?

삼행프로젝트는 3세대 즉, 조부모-부모-자녀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노령화와 가족 내 대화 부족으로 세대 간 단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부모·부모·자녀·아버지교육 등의 각종 교육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 문화체험 등 다채롭고 알찬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했죠. 그결과 삼행프로젝트는 총 800여명이 참여한 만족도 4.7(5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삼행프로젝트의 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험을 진행 중입니다.

즐거운 추억이 된 가족힐링캠프


삼행프로젝트의 첫 단추, 처음 시작된 3세대 가족힐링캠프에는 몇몇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도자기 컵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한 가족이 만든 컵이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인쇄된 컵의 주인 가족은 오히려 매우 즐거워하며 그 컵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이후에도 손자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면서요. 또 오후에는 양떼목장을 가기 위해 온가족이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원하는 가족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가족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한 것이 아니겠어요? 비 바람이 부는 가운데 가족이 서로 챙겨주고, 함께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해 열심히 일한 자원봉사자 분들 덕분에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 1 가족힐링캠프에 참가한 가족들
- 2 춤추는 미션을 수행하는 가족
- 3 부모 자녀 놀이교육
- 4 아버지 교육 중 애정표현 시간



건강한 소통, 행복한 가족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삼행프로젝트에 참여한 참가자는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건 물론, 가족끼리 자주 만날 수 있었다면서요. 또 다른 참여자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여 갈등을 키워왔던 것을 깨달았다. 삼행프로젝트를 참여한 이후 칭찬, 격려, 지지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며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위해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아이돌봄서비스 등 더 많은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_ 안정은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공헌 ●

한국 시세이도 바자회 · 뷰티클래스 열어



11월 9일, 캠퍼루스투어(서울점)에서 한국 시세이도의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바자회 및 미혼한부모 대상 뷰티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시세이도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미혼한부모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노트북 전달식



삼성 디지털프라자의 노트북 전달식이 10월 28일 진행됐다. 제품 구매 시 일정금액이 자동 후원되는 행사를 통해 마련된 노트북은 분회 다문화가정 아동 35명에게 전달됐다.

IBK기업은행 후원, 미혼한부모 가족캠프



10월 6일, 본회 미혼한부모 18가정은 IBK기업은행의 '자연나누리사업'을 통해 오대산국립공원 견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아이와 단둘이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 미혼한부모들은 자연 속에서 가을 여행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해했다.

이화여대의료원, 의료서비스 업무 협약식



9월 29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저소득 뇌성마비환자의 치료 및 재활지원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으로, 앞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씨엘오 마켓 후원금과 후원물품 전달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엘오 마켓' 운영진이 9월 27일, 미혼한부모를 위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운영진은 육아와 자립을 홀로 감당하는 미혼한부모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애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 본부 ●

학대아동지원 자선 음악회



학대아동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11월 12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이는 본회 서울후원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허숙진, CCM가수 김진태 등이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미혼한부모 지원 위한 바자회



11월 4일, 본부에서 미혼한부모 지원을 위한 사랑의 나눔바자회가 개최됐다. 미혼한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이 행사에 지역주민과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어져 풍성한 바자회가 진행 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여



10월 15, 16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참여했다. 총 66개 기관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나눔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창립 6주년 행사



10월 4일, 창립 6주년을 맞아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 기념식과 예배가 진행됐다. 말리 홀트 이사장님의 기념사에 이어 장기근속 직원 50여 명과 유공직원 17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웃을 섬기며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 지방사무소 ●

부산사무소, 탐리더스 신입위원 위촉



11월 3일, 임은주 원장(임은주가정원의학과의원)의 탐리더스 신입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오래전부터 홀트와의 인연으로 큰 선물을 이어오던 임은주 원장은 이번 고액후원자 모임인 탐리더스 회원에 위촉되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대구사무소, 꼬마화가 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10월 15일 대구 달서구 소재 이월드에서 '제 9회 대구맘 꼬마화가 사생대회 및 여성 백일장'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꼬마화가들을 비롯, 여성백일장에 참여하기 위한 엄마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청사무소, '참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숍'



충청사무소는 대전, 충남북 국내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참 행복한 우리가족 워크숍'을 실시했다. 11월 11일~12일 대전라온호텔에서 4가정 입양가족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서로 화합과 교제를 하

는 의미있는 워크샵이 되었다.

충청사무소,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진행



11월 1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취학이동 부모님 대상 반편견입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입양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열정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인천사무소, 제 12회 인천가족어울림자리



인천사무소는 10월 22일 입양가족,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회 인천 가족어울림자리'가 열렸다. 자연을 벗 삼아 가족들의 친목도모와 입양아동들의 만남의 장이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강원사무소, 행복나눔 바자회 진행



KBS 춘천방송총국에서 9월 1일, 입양대상아동, 미혼한부모,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 춘천시민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에서 마련한 한과, 특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스티브모리스 회장 후원금 전달



한국입양홍보회(MPAK)의 스티브모리스 회장은 지난 11월 9일 후원자의 밤 행사에서 모금한 13만 불을 일산타운에 전달했다. 스티브모리스 회장은 일산타운 장애인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 홀트학교 ●

스페셜 유니페스티벌 참가 3위 수상



11월 3일~5일, 홀트학교 Kick Off 통합축구단은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된 '2016 스페셜 유니페스티벌'에 참가하여 3위를 수상했다. 본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어깨동무 음악회



10월 26일, 2016년 어깨동무 음악회가 열렸다. 각 학교 음악 동아리가 함께 모여 화합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된 이 행사에 '아리랑 메들리' '보리울의 여름' 등 다양한 곡들이 울려 퍼졌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장애인복지관,
제3회 고양시 장애청소년 어울림페스티벌 개최



10월 8일, 어울림극장에서 '제3회 고양시 장애청소년 어울림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 장애·비장애 청소년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사회를 진행한 토크콘서트,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대구복지관, 개관기념일 행사



10월 27일 개관기념일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홀트가족 오감만족 한마당잔치 '홀트 러브러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알뜰바자회, 행복무료중식 나눔행사, 오감만족체험, 총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운봉복지관, 홀몸어르신 생일잔치



만65세이상 지역의 홀몸어르신의 생일잔치가 삼성생명과 동아기든의 후원으로 열렸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을 맞이하여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나들이도 하는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하남복지관, 하남도시공사와 연탄지원 사업



11월 9일, 하남도시공사와 함께 연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내 저소득가정 25가정에 총 1만 6천장을 전달하였으며,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봉사단이 직접 모든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여 따뜻함을 더했다.

수영복지관, 일일카페 '카톡카톡'



11월 2일 홀트부산후원회와 함께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카페를 실시했다.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며, 모금된 금액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본리복지관, '꽃보다 가족' 캠프 진행

10월 27일 ~ 28일 1박 2일 동안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서 본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꽃보다 가족 캠프'를 실시했다.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등 프로그램 진행 내내 웃음꽃이 만발했으며, 가



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아침들, '아주 특별한 콘서트'



미혼한부모로 구성된 아카펠라 그룹 'M♡VOICE'의 두 번째 콘서트가 10월 28일, 한밭도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음악을 통해 편견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고운들, '가족사진 공모전' 진행

고운들에서는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으로 미혼한부모 '가족사진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상, 우수상과 장려상 3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으며, 작품은 10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전시했다.

아름들, 미혼한부모 자격시험 합격소식

9월, 아름들의 미혼한부모 1명이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출산과 양육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꿈을 이뤘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미혼한부모 앞날을 응원하며 축하를 보냈다.

대구클로버, 가을캠프



9월 5~6일 대구클로버는 행복가득 가족캠프를 다녀왔다. 타지역으로 캠프를 떠나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대전클로버, 일일찻집 개최



9월 2일, 문화2동 새마을회와 함께 미혼모자 가정 돕기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개최했다. 새마을회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화통한 가족애 캠프



9월 24일~25일, 마포구 거주 3대 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총 1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가족 미니 운동회, 바비큐 파티 등을 진행하며 가족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다문화요리교육



다문화요리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다문화강사가 마포구 내 어린이집 27가관을 방문하여 베트남, 중국 등 자국의 문화와 음식 체험을 진행하며 다문화 감수성 이해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

● **전주영아원** ●

신나Go! 재밋Go! 꼬꼬마들의 가을 나들이



11월 8일 후원자의 지원으로 본원 아동 15명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로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은 동물 관찰 및 다양한 놀이기구 체험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난지 유아 숲 체험



10월 14일, 난지천공원에서 숲 체험을 진행했다. 토끼집, 모래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

되어 있어 오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자연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운동량을 늘려 사회성, 창의성 등의 정서를 개발했다.

홀트어린이집, 소방교육



수원소방서 배경숙 소방장의 재능기부로 10월 18일 부모님과 교직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동영상과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이용하여 실습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습득했다.

은방울어린이집, 졸업여행



11월 9일, 7세 어린이들의 졸업여행이 진행됐다. 자연생태체험, 캠프파이어,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11월 21일, 22일 양일간 갈매원에서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갈매원, 남동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예방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올 한 해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

지로나납부의 경우 12월 25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주셔야 2016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후원자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2017년 1월 중순부터)

온라인 회원 가입자가 아닐 경우
www.holt.or.kr 접속 ▶ 회원 가입 후 나눔지원팀 나눔상담콜센터
(02-331-7073~6)로 온라인 등록 요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 기부금 영수증 출력

-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력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연말 영수증 인터넷 출력 확대로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나 우편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02-331-7073~6으로 신청해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
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회복을 꿈꿉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은
CCM 가수 박요한 전도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CCM 콘서트 형식의 나눔예배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 속 사역에 동참하기도
약속하는 계기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배 문의 : 나눔협력팀 02-331-7144

CCM 가수 박요한 프로필

- 기대의 워킹 팀으로 데뷔
- 대표곡 : 기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축복의 사람, 언더우드 의 기도
- 방송 : CBS TV 성서학당 출연, CTS 라디오 번개탄 - 천국투게더 진행
- 저서 : 요한의 고백



홀트아동복지회의 홍보메신저가 되어주세요 휴대폰 통화연결음 신청

알렉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의 따뜻한 음성으로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설정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숙성부터 보관까지
사계절을 아삭하게

이제는
한겨울 땅 속 같은
메탈그라운드입니다

삼성 지펠아삭 **2017 NEW**



모델명: RQ57K929355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메탈그라운드 | 한겨울 땅 속처럼 김치맛을 아삭하게 해주는 메탈쿨링커버, 메탈쿨링선반, 메탈쿨링서랍, 메탈쿨링커튼, 메탈쿨링김치통

삼성전자는 홀트이동복지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눔 기업입니다.